

“강진 관광, 관광택시가 책임진다”

운전자 8명 전원 참석해 활성화 위한 간담회 소규모 개별관광 트렌드 변화에 사명감 운영

강진군이 지난 25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강진 관광택시 운전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관광택시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승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진 관광

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광택시 운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강진 관광택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관광택시는 코로나19 이후 기존 대규모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개별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강진 관광은 관광택시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수시로 이용객



강진군이 지난 25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강진 관광택시 운전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목공체험지도사 3급 2차 교육 운영 오늘부터 이틀간 장흥지역교육원서 실습·시험 진행

장흥군은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장흥지역교육원’목재산업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목공체험지도사 3급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목공체험프로그램 설계와 지도방법에 대한 일반 이론과 수공구,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체험교재 실습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목공체험교육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일 간의 교육과정 중 실습과 시험을 진행해 목재문화진흥회에서 발급하는 목공체험지도사 3급 자격증을 수여한다.

10월 1차로 개설됐던 목공체험지도사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모두 3급 자격을 취득했고 한 교육생은 실제적으로 취업과도 연계되는 성과도 냈다.
현재 장흥군은 생활목공 초급에 이어 중급 주말반(토, 일)과 평일반(수, 금) 총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목공예기능인양성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목재산업지원센터 장흥교육원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운영으로 지역목재문화 활성화와 목재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완도 해산물 우수성 입증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맥반석·해산물 영양학적 관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1월 25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완도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우세하나 영양 성분과 맛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기에,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빈 교수팀이 완도 토양과 갯벌의 분포와 암석학적 특성, 해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완도 본도와 유·무인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해저가 70~90% 이상 맥반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갯벌 역시 다른 지역과 달리 맥반석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모래와 펄이 혼

합된 혼성갯벌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맥반석은 특성상 정화작용이 우수하여 완도 해역의 깨끗한 바닷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하여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완도 해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패류의 경우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마그네슘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바지락과 꼬막은 면역력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했다.
꼬막은 신경 안정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바(GAB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복과 꼬막은 피로회복과 간 기능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우린 함량이 높았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신기마을,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성공적 운영

예비 귀어인 10명 대상...현장 체험·귀어 상담·전문가 교육 함께 받아



진도군 군내면 신기어촌계에서 예비 귀어인 1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진도군, 전남 귀어지원센터 등이 함께 진행,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서 살

면서 정착을 위한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는 현장 정착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예비 귀어 희망자들은 충북, 전북,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지난 11월초부터 한 달간 머무르며 전북·해상·광어 양식장, 맨손어업 등 현장 체험과 귀어 상담, 전문가 교육을 함께 받았다.

특히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참가자 중 30% 정도가 실제로 주택을 구입, 진도군에 이주해 정착했다.

손모씨(52세)는 “어촌이 좋아 이주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전국 10여 곳을 다니면서 체험을 했지만 어촌계 가입 문턱이 너무 높고 마음의 문을 열

어지지 않았다”며 “신기 마을에서는 모두 환영해 주고 다양한 어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신기마을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김성석 어촌계장(진도군 군내면)은 “신기 마을 주민들과 체험생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소통하고 젊은 청년들이 마을로 이주한다고 하니 가슴이 벅찬다”며 “덧새 없는 신기마을이 되기 위해 2019년 어촌계 정관을 대폭 개정해 문턱을 낮췄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이 진도군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어촌을 이해하고 귀어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었을 것”이라며 “한달 살기 체험 종료 후 더 많은 희망자들이 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해남미남축제, 2020 한국의 축제 공모 우수지역축제 선정

지역 농수특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축제 지향

해남미남축제가 ‘2020 한국의 축제’ 공모에서 20대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됐다.
한국의 축제 공모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축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망 지역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대국민 프로젝트이다.
두달여간에 걸친 공모와 예선, 본선 심사를 통해 축제 구독영상 경쟁, 축제 특산물 온라인 판매전 등 국민 참여형 예선을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위원단의 종합 평가를 더해 최종 4개 부문 20개 축제를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했다.
해남군은 먹거리가 넘치는 맛있는 축제 부문 우수축제로 선정, 해남 농수특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축제를 지향하는 해남미남축제의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

해남미남축제는 지난해 처음 열린 신생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13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미식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를 진행, 전국의 보건의료진들에게 해남특산물로 만든 미남도시락 2020개를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